

독립영화에 나타나는 영상이미 전달 효과 분석

- “길”을 중심으로 -

The Delivery Effect Analysis of an Image Meaning appeared the Independent Film

- Focused on the Independent Film "The Way" -

백보국, 이형석, 전병호
공주대학교

Beak Bo-Kook, Lee Hyung-Seok, Jeon Byeong-Ho
Kongju National University

요약

독립영화의 영상이미 전달 효과 및 불일치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자체 제작한 독립영화 ‘길’을 중심으로 독립영화에 대한 이해도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일반 대학생들과 영화전공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설문조사한 결과, 독립영화를 예술영화로서는 인정하지만 일반 대중 관객에게는 영상이미 전달이 어렵고, 영화 전반적인 지식과 관련 학문에 대한 이해 없이는 영화를 완전히 이해하기 힘들었다. 즉 독립영화 시스템 자체가 관객에게 흥미를 자아내는데 실패 했으며, 마니아적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또 영화 전공자들도 기획의도와 시놉시스의 설명 없이 영상이미를 바르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며, 영상이미에 따른 공감과 함께 반대의견도 제시되었다.

Abstract

To know the delivery effect and the disagree problem of an image meaning for an independent film, we analyzed the understanding level and problem of the film focused the self-produced "The way". The results which applied an interview question to general undergraduates and film major postgraduates, they admitted the film as an artistic film. But it was difficult for the film to delivery an image meaning to general spectator. Also they couldn't understand completely the film messages without having the entire acknowledge of movie. Namely, the film has been failed a spectator mobilization, because it had a strong mania propensity. Moreover, film-major specialists couldn't stand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film without explaining the planning intention and the synopsis. Most people presented the opposite opinion about the sympathy of an image meaning.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독립영화는 기존 상업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창작자의 의도에 따라 제작한 일명 ‘인디영화’라고도 하며, 이윤 확보를 목표로 하는 일반 상업영화와는 달리 창작자의 의도가 우선시되는 영화로, 주제와 형식, 제작방식 면에서 차별화 되고, 창작자의 성향에 따라 예술적 가치가 나타난다.[1]

상업 영화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는 예술영화 감독들이 많으며, 이 또한 그 시작이 독립영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본문에서 예시 될 독립영화는 예술영화의 구체적 특징들이 집결된 단어라고 논자는 명칭 하였다.

반면, 독립영화는 대중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수많은 독립영화 지원활동 및 영화제들을 통해 과거 보다는 손쉽게 접할 수 있지만, 여전히 영화인들만을 위한 축제처럼 변질 되었고, 대중 관객들의 독립영화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은 편이다. 영화의 제작은 관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목적이 그 근본이 되어야 한다. 허나 그 틀을 벗어나 있는 독립영화는 제작자의 개인 포트폴리오로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예술성 짙은 영화이지만 대중 관객에게 외면당하는 현실을, 대부분의 독립영화 제작자들은 관객의 지적 수준에 의존한다. 하여, 논자는 예술영화 즉 독립영화가 관객들에게 외면당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제시되는 문제점들의 보안을 위해, 논자가 제작 기획한 독립영화 ‘길’을 샘플로 이용해 설문을 해 보았다. 본 설문의 의도가 개인적 작품에 대한 신뢰도 조사와 영상이미 전달을 통한 그 문제점들을 찾고, 여기서 제기 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개인적 반성과 독립영화 전반에 걸친 문제점들을 논하고 싶은 바 이다. 물론, 샘플 설정에 있어 한정되고 작위적인 관점이 발휘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소수의 설문으로는 연구의 신뢰도가 낮다는 것을 인정,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논자 개인적 자료로서의 의미가 크다는 것을 재차 밝히는 바 이다. 이는 독립영화가 대중 관객에게 사랑 받지 못하는 이유와 문제 제기

를 통해, 영화는 대중예술이라는 주제를 부각 시키고 이런 대중예술의 한 부분인 독립영화가 현실적으로 관객에게 커뮤니케이션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싶다.

II. 연구 배경 및 설계

1. 배경

영상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가장 쉽고 빠르며 수용자의 주관적 생각과 결합하여 개인적 의미를 부여한다. 같은 영상을 보고 표면적으로 공감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내적으로 개인의 의미 부여는 모두가 일치 할 수 없는 것이다. 본문에서는 기술적인 영화와 예술적인 영화를 구분하여, 상업영화와 독립영화라는 두 가지 단락을 제시하고, 독립영화를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예술영화로 명칭 하였다. 독립영화는 곧 예술영화이기에 창작자의 의도에 따라 변이 되는 주관화된 시점이 크고, 또 샘플 작품을 감상평 함에 있어 전문인과 비전문인으로 구성된 실험자들 전체에게 쉽게 이해 될 수 있는 언어의 선택을 위해, 기호학적 형식을 고집 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나 기본지식 없이 영화의 메시지를 쉽게 공감하고, 토론하기 위해 평범한 감상문 형식의 이론을 바탕으로 설문하였다. 그 이유가 영화의 이미지를 여운이 있는 문장으로 표현하기에는 어렵고, 예술을 말하기에는 너무 무미건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논자는 샘플을 미학적 관점으로 접근 로저 스크러튼의 "건축미학"에서 나오는 개념으로 상투성, 자극성, 오락성으로 특징되는 대중 예술의 미학적으로 접근한 방법을 인용, 즉 세부 미학 관점인 '상세감각(sense of details)' 이론을 통해 분석을 해보고 연구 하였다.[2]

이는 대중예술의 한 장르인 독립영화를 다양한 계층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설문과 분석을 하기에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의 설계

2.1 연구가설

- 1) 독립영화 '길'에 나타난 주제가 일반 관객에게 어떤 의미로 생성되는가?
- 2) 독립영화 '길'에 나타난 주제가 전문 영화 지식인에게 어떤 의미로 생성 되는가?
- 3) 독립영화가 대중에게 호응도가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2.2 연구대상

일반 대학생 10명

영화전공 대학원생 10명

2.3 연구범위

- 1) 본 연구에 사용된 영상매체는 논자가 제작 감독한 독립영화 "길"과 그에 따른 제작노트를 사용하였고 상영시간은 30분이다.
- 2) 본 연구는 독립영화에 대한 전반적인 상식이 없는 일반인 10명과 독립영화를 제작하고 영화 전반적 상식을 가진 10명을 대상으로 한다.

2.4 연구의 절차 및 방법

본 연구는 일반인 10명과 영화전공자 10명을 대상으로 독립영화 "길"을 보여준 후, 기획의도와 시놉시스 설명 전과 후로 나누어 영상의미전달을 조사한 설문을 본문의 내용으로 한다.

III. 독립영화 '길' 분석

1. 기획의도와 시놉시스

'인연人煙'과 '윤희輪廻' 라는 메시지를 내제하고 있는 독립영화 '길'은 가족이었던 죽은 자들이 '유계有界'에서 다시 만나 저승길을 동행 한다는 불교의 '윤회사상'을 기초로 하여 제작되었다. 영화의 기획의도가 관객에게 생각할 수 있고, 질문 할 수 있는 오픈마인드를 주기 위해 대사와 설명을 절제하였고, 주제의 정답을 제시하지 않았다. 영상미학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영상언어를 중심으로 현장 음과 가사가 없는 배경음악 위주로 설정하였다. 연구대상에게 그런 감독의 의지가 똑바로 전달되는지를 알기 위해, 영상에 대한 일체의 설명을 하지 않고 영화를 보여준 후 설문 하였고, 또 영상에 대한 시놉시스와 기획의도를 설명한 뒤 영화를 보여준 후 설문 하였다. 주제가 되는 영상의미 전달의 올바른 측정을 위해 영화전반에 대한 상식이 있는 부류와 일반 관객을 나누어 측정 하였다.

시놉시스 : 세상과 영혼의 길목 '유계', 미사는 길을 따라 과거에 그녀가 속해 있었던 장소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나쳐 간다. 미사는 그 길 안에서 미호와 운도를 다시 만나게 되어 동행 한다. 그들은 세상 속에 있을 적부터 인연 이었다. 셋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함께 목적지로 향 한다. 죽은 영혼들이 모이는 세상의 끝을 향해, 서로와 공간을 기억하지 못한 채 서로를 그리워하던 세상에서 벗어난 것이다. 영혼의 무덤으로 함께 가기 위해 이곳 유계(저승길)에서 그들은 다시금 인연을 쌓아간다. 세상의 끝은 또 다른 시작을 암시 한다.

3.1 시퀀스별 상세 감각 분석(의미전달)

각 시퀀스별 상세감각 분석을 통해 예시될 실험조사의 자료가 되도록 하고, 실험자들이 독립영화 '길'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도를 측정하기에 유용하게 사용될 자료일 것이다.

#1) 미사 눈을 감고 태양을 응시+미호의 등장 (03:38)

태양의 따사로움과 그 빛을 받은 영혼의 평온함을 표현하기 위해, 미호를 등장시켜 미사가 미호의 그리워함을 표현 했고, 태양을 응시 뒤에 미호를 사라지게 하면서 영혼 세계가 가지고 있는 평온함을 표현, 삶에 대한 고리를 놓는다는 의미의 영상을 보여주며 관객에게 힌트를 주었다. 유계 공간에 대한 긍정과 주제인 윤희사상을 표현 하고자 했다. 배경음악은 '유키 구라모토(Yuhki kuramoto) - In a Beauty'를 사용 하였다. 태양을 응시하는 20초 동안을 배경음악으로 들려주었고, 잔잔하면서도 서정적인 분위기와 영상이 표현하고자 하는 포근함에 맞추어 선곡하였다.

#2) 미호가 징검다리를 건너게 도와주는 미사 운도(11:00)

미호의 죽음의 원인인 물에 대한 공포를 보여줌으로서 암시를 주고, 서로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을 제시함과 동시에 도움을 보여줌으로서, 서로에 대한 연민과 세상에서의 세 사람의 유대관계 및 유계에서의 재회를 표현하고, 인연이라는 주제를 부각 시키고자 연출하였다. 사실성 짙은 영상과 배우들의 동선을 살리기 위해, 배경음악 없이 현장 음만을 사용하였다.



1



2

#3) 유골가루를 뿌리는 미호+분필가루를 부는 미사+가방에 서 충을 꺼내는 운도 (19:25)

자신의 유골을 발견해 눈물을 흘리는 미호, 그 유골의 주인인 미사, 그리고 다시 죽음의 도구를 만지는 운도를 보여 줌으로서, 세상에서의 기억이 상기 되었으며, 동시에 그들의 서로의 관계와 죽음을 인지하였다고 표현, 즉 자신들의 가족인 동시에 영혼인 것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표현 하고자 했다. '유키구라모토 - Little Star Light(02:50)'를 배경 음악으로 사용하였다. 신비하면서도 슬픔을 나타내고 의혹을 부른다는 의미에서 영상과 잘 매치가 되었고, 전체적인 영상의 흐름을 도와주도록 선곡하였다.

#4) 세 사람과 칠판 (2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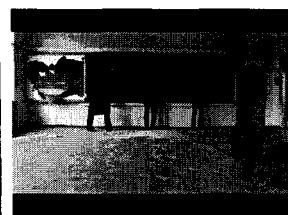
세 사람이 한 칠판에 나란히 서서 글을 쓰는 모습을 보여 준 것은, 이미 죽음을 인지하고 서로를 기억하게 되었으며, 세상에

못 다한 이야기와 미련을 남긴다는 의미에서 '유서'라는 의미를 받아들여지게 하고, 칠판에 선을 이용해 세 등분을 나눈 것은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신, 즉 자신의 업보는 자신이 짊어지고 간다는 의미를 표현 하고자 했다.

칠판에 글을 쓰는 의미를 관객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현장 음을 사용, 장면이 바뀌기 전 10초간 '유키 구라모토 - Reflection In The Lake(03:13)'를 배경음악으로 시작해 다음 씬들 과도 흐름을 이어지게 하였고, 슬픔을 묵인한다는 의미로 새로운 목적 변화에 맞추어 피아노 선율이 강하면서도 여운이 남는 곡을 사용하였다.



3



4

#5) 병 속에 담긴 편지+유골을 쌓았던 천+사진과 종이 (2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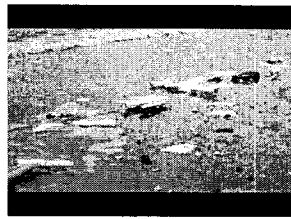
병 속에 편지를 넣어 바다에 던지는 미사, 유골을 쌓았던 천을 바람에 날려 보내고 달리는 미호, 가방에 쌓여 있던 문서와 사진들을 태우는 운도, 이 세 장면은 영혼의 길 끝에 도착한 것과 그들이 이미 세상에 대한 미련과 후회를 떠내 보내고, 떠나왔기에 다시 재생 할 준비가 되었으며, 자신들의 영혼을 뜻하는 물질들을 놓아 버린다는 의미를 표현 하고자 했다. 바닷가의 풍경과 시원함, 영혼의 깨끗함을 표현하기 위해 '유키 구라모토 - Calming Island(04:40)'를 배경음악으로 사용 하였다. 원곡에 사용된 파도 소리와 현장 음이 어우러져 전반에 사용되었던 정적인 분위기와 차별화를 주기 위해 선곡 하였다.

#6) 해변 가의 병 속에 담긴 편지 (27:07)

해변 가에 다시 돌아와 있는 병 속에 담긴 편지와 타버린 문서와 사진들, 또 다른 병속에 편지들을 보여 줌으로서, 이 사물들은 영혼이고 그들은 다시 돌아와 새로운 생명을 얻고 또 다시 이곳에 돌아 올 거라는 암시와 그 곳은 그들만이 아닌 수많은 다른 영혼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구성으로, 인연과 윤희라는 영화전체의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설정 하였다. 현장 음만을 사용하여 파도소리를 부각시켰고, 바다라는 물질을 내포하고 있는 공간성과 영화 전체적인 이야기 중심부를 표현 하고자 했다.



5



6

2. 독립영화 '길'에 대한 의견 조사 분석

독립영화 '길'의 기획의도와 시놉시스를 설명 전 과 후로 나누어 영상 의미전달의 어느 정도 이루어 졌는지를 설문 하였다. 또 영화에 대한 전문적 상식이 있는 부류와 그렇지 않은 부류를 나누어 일반인과 전문인이라는 명칭을 주었고, 바른 이해, 대체로 이해, 이해 못함으로 세 등급을 나누는 등, 영화 전반에 걸친 각 시퀀스별, 독립영화의 호응도에 대한 실험 결과에 따른 표를 만들어 보았다.

각 시퀀스별 차이는 있지만 기획의도와 시놉시스의 설명 전, 일반 대학생들 대부분인 91.3%가 영상의 의미하는 뜻을 전달 받지 못하였고, 전문인은 61.4%가 영상의미를 전달받지 못하였다. 기획의도와 시놉시스의 설명 후, 일반 대학생들 73.0%가 영상의 의미하는 뜻을 전달 받았고, 전문인 대부분인 81.3%에게 영상의미가 전달되었다.

[표 1] 시퀀스 별 기획의도, 시놉시스 설명 전

s#	설명 후 영상의미 이해 정도	
	일반인	전문인
#1	이해 8명 불이해2명	이해 8명 불이해 2명
#2	이해 7명 불이해3명	이해 8명 불이해 2명
#3	이해 8명 불이해2명	이해 9명 불이해 1명
#4	이해 7명 불이해3명	이해 8명 불이해2명
#5	이해 8명 불이해2명	이해 9명 불이해1명
#6	이해 6명 불이해 4명	이해 7명 불이해3명

[표 1-1] 시퀀스 별 기획의도, 시놉시스 설명 후

s#	설명 전 영상의미 이해 정도	
	일반인	전문인
#1	이해 0명 불이해10명	이해 4명 불이해6명
#2	이해 2명 불이해8명	이해 5명 불이해 5명
#3	이해 0명 불이해10명	이해 3명 불이해 7명
#4	이해 2명 불이해8명	이해 4명 불이해 6명
#5	이해 1명 불이해9명	이해 3명 불이해 7명
#6	이해 0명 불이해10명	이해 4명 불이해 6명

독립영화 '길'에 대한 전체적인 의미 전달 만족도는 기획의도와 시놉시스의 설명 전, 일반 대학생들 대부분이 영상이 의미하는 뜻을 전달받지 못하였고, 전문인은 절반정도가 영상의미 전달이 되지 않았다. 기획의도와 시놉시스의 설명 후, 일반 대학생들 상당수가 영상이 의미하는 뜻을 전달 받았고, 전문인들 또한 전체적으로 영상의미가 전달되었다.

[표 2] 전체 영상의미 이해 정도 설명 전

실험자	설명 후 실험에 의한 결과	
	바른 이해	2명
일반인	대체로 이해	5명
	잘못 이해	3명
	전문인	7명
전문인	대체로 이해	2명
	잘못 이해	1명

[표 2-1] 전체 영상의미 이해 정도 설명 후

실험자	설명 전 실험에 의한 결과	
	바른 이해	0명
일반인	대체로 이해	2명
	잘못 이해	8명
	전문인	0명
전문인	대체로 이해	5명
	잘못 이해	5명

독립영화 전체적인 문제점인 호응도 조사에서 '앞으로 독립영화를 볼 것인가?'란 질문에 대해 일반인들은 대부분이 '안볼 것이다.' 라는 결론을 이와 대조적으로 전문인들은 '볼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왔다. 그럼 '왜 관객들은 독립영화를 외면할까?' 라는 질문에, 대다수가 지루하다, 어렵고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된다, 찾아서 보기가 귀찮다는 등, 대중적인 성향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불만들이 중복된 의미로 나왔다. 또 이러한 불만들은 앞으로 독립영화를 볼 거라고 응답한 대다수의 실험자 응답에도 중복되며, 독립영화를 영화적인 영화로 보는 것이 아닌 예술영화로서 관객들에게 인지되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표 3] 앞으로 독립영화를 볼 것 인가?

실험자	앞으로 독립영화를 볼 것이다	
일반	그렇다	3명
	그렇지 않다	7명
전문	그렇다	9명
	그렇지 않다	1명

[표 4] 독립영화는 예술영화 인가?

실험자	예술영화	영화적인 영화
일반인	9명	1명
전문인	8명	2명

IV. 검토

설문 결과 기획의도와 시놉시스 설명 전, 일반인은 영상의 뜻을 대부분 이해하지 못하였고, 전문인은 절반 정도가 이해하지 못 하였다. 허나 영상물 자체가 의미가 없음이 아닌 창작자의 의도와 다른, 실험자 개인 성향에 따라 주제를 가진 영상물로 인지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기획의도와 시놉시스 설명 후에는 일반인과 전문인들 대부분이 이해는 하지만, 공감하지 못한다는 소수 의견이 나왔다. 또 독립영화에 관련된 기초지식이 있는 부류가 기초지식이 없는 부류보다 많이 이해하며, 그 의미에 따른 공감성도 높고, 질문과 의미에 대한 반대의견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커뮤니케이션 이 후에 제기 되는 문제로, 영상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표면적인 영상 의미 전달이 수용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기획의도와 시놉시스의 설명이 없이 영상물만으로는 영상 의미 전달이 바르게 되지 않고, 창작자의 기획의도와 수용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선 실패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V. 결론

설문 조사 결과 독립영화 '길'을 본 설문 참여자들은 설명 전에는 대 다수가 영상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바로 인지 하지 못하였고, 설명 후에는 전체적으로 기획의도와 각 시퀀스별 의미를 인지하고 공감하였다. 반면 영화내용 설명 전 개인이 의미 부여에 있어서 영화전공자들은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영상이 말하는 메시지를 찾으려 노력했으나 비전공자들은 영상에 나타난 그대로를 인식하여 현실적인 답변을 하였다. 조사 후 평론에 있어서도 비전공자들은 의미전달에 있어서 어렵다는 결론을, 전공자들은 기획의도에 대한 공감과 질문을 나타냈다. 또, 독립영화가 일반관객들에게 외면당하는 이유가 각 제작자들의 주제설정과 영화의 완성도 보다는 영화제작에 있어서의 전문성과 대중성을 고려하지 못함이 중심에 있으며, 좋은 작품이라도 소개 될 매체가 적고, 대중들이 독립영화를 어려워 하며, 사실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영화가 올바른 의미전달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 성향을 가진 룰이 있고, 관객을 생각하게 만들고 질문하게 만드는 공감되는 주제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독립영화 즉 실험영화는 그 틀을 거부할 수도 긍정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영화에서만 한정되지 않는 철학과 예술문화와 같은 기초지식 및 개인취향을 바탕으로, 마니아층을 형성하는 장르인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논자의 작품만으론 독립영화의 의미전달에 대해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기획의도에 있어서 실험영화에 가까운 '길'은 관객에게 질문을 던져줄 뿐 정의는 내리지 않으려고 한 논자의 의도에 있어서는 만족하지만, 영화 전반적으로 내제된 의미부여 전달에서는 실패하였고, 실험영화라는 가정하에서도 전문가들의 지적한 기본적인 영화제작 전반에 있는 아쉬움들이 포착되었다. 본인의 작품으로 영화를 되돌아보고 조사함에 있어, 연구목적과 동시에 앞으로 독립영화 제작단계에서의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큰 계기와 많은 반성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다음기획에 대한 시발점을 찾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는 좋은 독립영화와 영화인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막대한 수입과 즐거움을 창출해 내는 대중(산업)영화의 시작은 독립영화를 기초로 하는 인재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 순수하게 영화를 위해 기꺼이 젊음

을 바치고 있는 수많은 독립영화인들에게 갈채를 보내며, 우리 영화현장에 대한 불만과 아쉬움이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한국영화 전체적인 제작 시스템의 부조리성과 그에 따른 제도에 관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 참고 문헌 ■

- [1] 로버트 로드게리츠 외, "우리가 인디정신을 아는가?", pp.115-116, 황금가지, 독립영화 통권2호, 1999.
- [2] 박성봉 "대중예술과 미학", p.56, 일 빛, 2006.
- [3] 존 피스크 외, "문화 커뮤니케이션 론", 한 뜻, 1997.
- [4] 조이스 캐롤로스 외, "작가의 신념", 북 폴리오, 2005.
- [5] 잉그마르 베리만 외, "상상력과 전쟁", 인물과 사상사, 2002.